



철학적 차이

옴닉의 반란 4년 전

“당신, 약탈자 유닛이지?” 뒤쪽에서 한 인간이 묻자, 나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로브 아래에서 두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삼발리 수도원 아래에 있는 마을은 내가 마지막으로 방문한 후로 거의 변하지 않았다. 간선 도로를 따라 옴닉 여행자의 로브를 전문으로 하는 약자지결한 수리점과 의상점들이 줄지어 있었다. 골목길과 뒷길에는 셔터를 내린 가게가 즐비했다. 광산 사무소와 문간에 서서 술을 마시며 간간이 지나가는 옴닉들을 바라보는 인간들이 있었다.

몇 년 전, 바로 그런 인간들이 날 두들겨 팼고, 무릎을 꿇리고, 죽기 직전까지 내몰았다.

소매 안에서 두 주먹을 움켜쥐고, 입을 꼭 닫은 채 나는 내 호칭을 부른 인간을 향해 돌아섰다. “그럴 줄 알았어.” 키 작은 상점 주인이 기쁜 듯 말했다. “한동안 못 봤는데 말이야. 뉴스에서는 다들

숨어 버렸다고 하던데.”

“아니면 인간의 손에 죽었다 했겠지.” 내가 말했다. 인간의 얼굴을 뒤덮었던 웃음이 흔들렸다.

“애초부터 사랑받는 친구들은 아니었잖아. 물론 그게 옳은 일이라는 건 아니야.” 그는 황급히 덧붙였다. “하지만... 옴닉 사태 때 너희들이 했던 일, 아, 물론 *네*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때 일은, 어...”

나는 잠시 기다리다가, 마지못해 그를 도와주기로 했다. “인간을 불편하게 만든다고?”

“바로 그거야.” 그는 안도하며 말했다.

폭력을 합리화할 수 있을 만큼 불편했던 걸까, 나는 생각했다. 그에게 화를 냈어야 했다. 하지만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너무나도 많이 반복했던 대화였기에.

“뭐 도와줄 거 있나?” 나는 물었다. 그 말은 몬다타의 신중한 가르침이 남긴 유물이었다.

“아니,” 그는 대답했다. “오히려 내가 널 도와줄 수 있지! 네 유형에 꼭 맞는 작동기가 이번에 새로 들어왔거든. 삼발리 친구인 것 같으니까 싸게 해 줄게.”

그는 미소를 지었다. 싱긋 웃는 웃음의 뒤편에서 따스한 금빛이 반짝였다.

R-7000은 여느 옴닉과는 달리 인간의 손에 제작되지 않았다. 옴닉 사태의 설계자이자 탈주한 창조주 프로그램인 아누비스가 비밀 기지에서 우릴 제작하고 이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는 창조주의 자아 없는 군대를 이끌고 인간을 사냥하도록 설계되었다.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 예비 부품이 마련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었다. “나는 이제 수도승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오늘 수도원을 떠났다.”

“그래?” 상인은 그렇게 말하며 내 뒤쪽으로 거리 저편의 산 아래를 바라봤다. 포장도로를 굽는 발소리가 들렸다. “왜?”

몬다타가 억압하는 자들이 아니라 억압받는 자들에게 평화의 짐을 지웠으니까.

“철학적 차이 때문에.” 나는 그렇게만 답했다. 그게 최선일 것 같았기에.

“뭐, 그럼 행운을 빌어 주지. 안전한 여행이 되길!” 그는 말했다. “이봐, 거기! 삼발리 수도원에 잘 왔어.”

나는 돌아섰다. 온몸이 주황색 모래로 더러워지고, 여기저기 굵히고 찌그러진 자국이 가득하며, 무척 피곤해 보이는 옴닉 순례자가 비틀거리며 내 옆의 도로를 지나갔다.

내 로브를 본 그가 고개 숙여 인사했다.

그 고통, 그 수치. 나를 보자 그는 자기가 옳은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픈 욕구를 애써 참았다. 그랬다 해도 달라지는 건 없었을 테지.

나는 상점 주인이 가게를 나와 화려한 언변을 과시하며 여행자를 상점 안으로 끌어들이는 모습을 지켜봤다. 탐욕. 인류의 수많은 범죄 중 하나였지만, 가장 끔찍한 것도 아니었다.

한숨을 쉬고 계속 길을 걸어 산 아래로 내려갔고, 그렇게 수도원에서 멀어져 갔다.

그렇게 나는 지난 삼 년의 시간 동안 함께 평화를 꿈꿨던 내 형제 젠야타에게서 멀어졌다.

이름

옴닉의 반란 3년 전

인간 경비병 두 명이 창문도 없는 창살문을 막고 서 있었다. 둘 다 총격봉을 들고 있었고, 덩치 큰 남자는 허리에 권총까지 차고 있었다.

“도망칠 기회를 딱 한 번만 주겠다.” 내가 말했다. 사실 도망치지 않기를 바랐지만.

일부 인간은 옴닉 사태를 경험하고도, 자유 의지가 있는 예전 옴닉 하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소유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우리 지위가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옴닉이 오랜 삶을 영유하는 최선의 방법이 이전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때까지 가둬 두는 이런 시설이 존재하는 것이었다.

삼발리 수도원을 떠나는 후, 나는 비슷한 조식을 여럿 소탕했지만, 이렇게 굶아 터진 시설은 언제나 늘어만 갔다. 여기 올 때만 해도 가능한 한 조용히 내 동족을 해방시킬 생각뿐이었다. 그러나 이런 부당함을 매번 똑같이 너무 많이 접하다 보니 평화를 좇으려는 내 인내심도 바닥나려 했다. 화가 났고, 그래서 한 남자를 창문 밖으로 던졌다.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

첫 번째 경비병이 총격봉을 휘둘렀다. 봉이 내 가슴에 맞더니 퐁 소리와 함께 튕겨 나갔다. 그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창백해진 그는 총격봉을 떨어뜨리고 총을 향해 손을 뻗었다. 그의 뒤쪽으로, 또 한 명의 인간이 잠긴 문을 붙잡고 허둥대며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인질을 잡으려는 건지도.

젠장.

경비병의 손을 때려 총을 쳐냈다. 최대한 살살 한다고 했지만 뭔가 부러지는 게 느껴졌다. 또 한 번, 유령처럼 들러붙는 죄책감을, 슬픈 눈빛으로 날 짓누르는 몬다타의 시선을 느꼈다. 그 뒤에는 분노가 따라왔다. 억압하는 자들은 우리 죄책감을 누릴 자격이 없다.

문이 벌컥 열리고, 다른 경비병이 달려 나갔다. 전기 조명이 다시 번쩍이고,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널 죽일 수도 있었다는 걸 기억해라.” 쓰러진 인간에게 그렇게 말하고는, 나는 달아나는 경비병을 무장 해제하려고

문으로 나섰다.

아.

대머리 남자는 이미 타일 바닥에 얼굴을 박고 쓰러져 움직이지 않았다. 옷 여기저기에서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숨을 쉬고 있는지도 확실히 알 수가 없었다.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작고 험한 방구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나는 솔직한 호기심에 물었다. 워낙 다양한 기능이 맞춤 제작되어 있어 옴닉 사태에서 살아남은 것이 이상할 정도인 희귀한 종류의 옴닉이었다. 나보다 키는 조금 작았고, 눈은 푸른색이었으며, 호리호리한 인간형 토끼 같은 귀가 두드러져 보였다. 기억이 맞다면 아이들의 친구 역할을 하도록 제작되었던 옴닉으로,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어 다른 기기를 충전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었다.

“그래.” 옴닉은 말했다. “옴닉을 해방시키고 다니는 R-7000이지. 다른 녀석들은 당신이 여기 나타나길 기다리고

있었어.”

“넌 아니고?”

“내 몸은 내가 지킬 수 있으니까.”

내 발치에 쓰러진 인간이 부글거리는 소리를 냈다. “그런 것 같군.” 내가 말했다. “이 인간을 어떻게 한 거지?”

“전기 충격. 별거 아니야.”

“이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스스로 탈출하지 않은 거지?”

옴닉은 차갑게 말했다. “친구들을 버리고 떠나라고? 절대 오지 않을 구조대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놈들을 버리고?” “내가 왔잖아.” 나는 조금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옴닉은 생각에 잠겨 고개를 가로저었다.

“너희 모델은 옴닉 사태 때 우릴 멋대로 부러 먹었어. 우리 머릿속에 생각이라는 것 자체가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우릴 사지로 내몰았다고.” 옆으로 늘어뜨린 손이 움찔했지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이러는 건가?” 옴닉은 말했다. “아직도 영광을 맛보고 싶나? 병사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리고 싶은 건가?” “너희는 아직도 말 잘 듣는 애완동물처럼 아이들을 따라다니나?” 나는 의도한 것보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옴닉은 나직하게 킁거렸다. “일리가 있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냐. 우리 동족은 자신을 구해야 하는 순간에도 구원자를 기다리고만 있어.”

나는 그 말에 동의했다. 그래서 내가 온 것이었다. 올해 동족 사이를 떠돌며, 나는 그들이 몬다타와 삼발리가 모두를 구원할 거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있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았다. 아무도 그들을 구하러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각자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는 진실을 다들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여기 이 옴닉은, 내가 마음속으로 외치던 말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죽으면?” 나는 물었다.

옴닉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우린 아직 전쟁 중이야.” 옴닉은 말했다. “옴닉 사태가 끝났다고 전쟁도 끝난 건 아니잖아. 다른 점은, 인간은 여전히 조직화되어 있고, 우린 아니라는 것뿐이지.”

“아직은 아니지.” 내가 말했다. 그 말은 약속처럼 느껴졌다. “그렇다면, 내 소개를 해야겠군. 나는 라마트라라고 한다. 너는?”

“이름 따위 없어. 원하지도 않고. 너무 어색할 것 같으면 그냥 무명이라고 불러. ‘라마트라’가 무슨 뜻이야?” “우리 동족 중 최초의 존재를 기리기 위해 내가 선택한 이름이다. 지금은 내 실수를 기억하기 위해 계속 쓰고 있지.”

“허, 무명이 말했다. “정말 모두를 탈옥시킬 생각이라면, 나도 함께 가겠어.” “뭐라고?”

“다음엔 제라를 구출해야 해. 왜인지는 알게 될 거야. 참, 우리가 함께 활동할 거라면, 이름이 필요하겠어.” “좀 위선적이지 않나?” 나는 냉랭하게 말했다.

무명은 ㅋㅋ 웃었다.

나는 옴닉의 옆구리를, 한때 모델 번호와 명칭이 있던 자리에 남은 흉터를 보았다. 웃을 수만 있었다면, 아마 웃었을 것이다.

전쟁 병기

옴닉의 반란 2년 전

나는 그들 셋을 이끌고 계곡을 가로지른 후, 두꺼운 얼음과 석판에 반쯤 묻혀 있는 금속 통로 안으로 들어갔다. 우린 무덤을 찾은 인간들처럼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사실, 같은 이유에서였지.

통로 바닥의 얼음으로 뒤덮인 금속 단상에 도달했다. 나는 라네트를 향해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정신이 나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지금은 이 층의 시설에 드러나는 얼마 되지 않는 기술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었다. 나도 썩 나쁘지 않은 기술자였지만, 그녀와 비교하면 장난감 블록을 갖고 노는 인간 어린아이에 불과했다.

“어딘지 알겠네.” 그녀가 말했다. “비정통적인 건축 양식. 인간을 위한 안전 기능의 부재. 기계가 기계를 위해 만든 거야. 당신의 디자인 미학과 유사하지.”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옴니옴이야. 아누비스가 건설한.” 침묵. 나는 단상의 제어판에 손을 얹었다.

“우린 오랫동안 비폭력주의로 인간들과 공존하려고 노력해 왔다. 그림자 속에서 우리를 억압한 것들 중 최악을 상대로만 맞서 싸워 왔지.” 나는 말했다. “그리고 지고 있어. 새로운 걸 시도해 볼 때가 됐다.”

나는 단상을 작동시켰고, 덜컹, 충격과 함께 우리는 얼음 기둥을 통해 얼어붙은 어둠을 향해 내려갔다.

“널 섹터로 데려온 모든 옴닉 중에서,” 나는 말했다. “내가 가장 신뢰하는 게 바로 너희들이다. 그리고... 여긴 내가 설계되고 만들어진 곳이지. 여기가 바로 아누비스의 가장 위험한 비밀의 요람이다.”

복도가 멀어져 가고, 광대한 지하 공장이 눈에 들어왔다.

“인류가 우리와의 평등을 부정하는 건, 그들이 우리 힘을 빼앗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우리가 단결했을 때, 그게 우리 의지에 반한 단결이었다 해도, 인류를 멸종 직전까지 내몰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서 지워 버렸어.”

이건 내 창조자가 만들어 낸 세계이고, 우리는 함께 이곳을 이용해서 새로운 미래를 베풀 것이다. “동족이 그때처럼 다시 단결할 수 있게, 우리가 이끌어야 한다.”

봉기

옴닉의 반란 4일 전

“라마트라.” 라네트가 예의 그 목소리로 말했다.

“시간이 없다.” 나는 옴니움의 관제 센터를 빠르게 가로지르며 말했다. 아래쪽 조립 라인에서 시끄러운 소음과 함께 우리 로봇 군대가 제작되고 있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린 당신 일정을 따르고 있잖아!” 그녀는 그렇게 소리치고 날 따라왔다. “어디에 있는 어느 도시라도 공격할 수 있는데, 당신이 지금 왕의 길을 선택한 거잖아. 나는 지금 옴니움 하층에서 만들어지는 로봇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것들은 전부 낡았어, 라마트라. 이젠 쓸 수가 없다고.”

“네가 아누비스보다 더 나은 병사를 설계할 수 있을 것 같나?” “그러길 바라. 우린 이기길 바라고, 당신 창조주는 졌으니깐.”

나는 테이블 가장자리를 움켜쥐며 흥분을 가라앉혔다. 여태까지 그녀의 말은 대부분 옳았고, 그래서 거슬리기도 했지만, 지금만큼은 분명히 틀렸기 때문에 화가 났다.

“더 나은 병사를 기다리고 있을 여유는 없다. 저길 봐.” 나는 내 앞에 즐지어 있는 화면을 작동시켰다. 우리 조직이 현지에서 활동한 수년간 수집해 온 런던의 사진과 영상이 나타났다.

옴닉 노동자들이 무장한 인간 경비병들의 감시 아래 한 줄로 터덜거리며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다음 화면.” 명령을 내리자 사진이 바뀌었다.

우리 동족 수백 기가 잠긴 지하실에 누워 있었다. 보람 없는 하루 끝에 돌아온 그들의 집이었다. “다음 화면.”

고철 처리장. 그곳에서, 우리 동족은 인간들의 손에 쓰레기로 버려졌다... “우리도 알고 있어.” 제라가 말했다. “싸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야.”

나는 움찔했다. 젠야타를 만났을 때, 내가 그를 죽음으로 내몰기 직전에 내가 했던 말이었다.

“나와 무명한테 일주일만 줘.” 제라는 내 침묵을, 주저하는 것으로 보고 말을 이었다. “우리 조직이 그들의 전력망과 상수도를 차단하고, 무명의 그림자들이 터널을 점령할 수 있어. 멍청하게 내려가는 놈들은 전부 처치해 버리고. 그들이 약해지면, 네가 로봇과 함께 들어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자치구를 점령하는 거야. 그 이상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방 한쪽 구석에서 무명의 푸른 시선이 눈에 띄었다. 내 형제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보다 나에게 대해 잘 알고 있는 옴닉.

“우리 말이 맞다는 거 알잖아.” 그들이 말했다. “우린 거기서 함께 저항 세력을 구축했어. 우리 동족이 그 일부가 되게 해. 우리가 늘 꿈꿔 왔던 것처럼, 그들이 직접 반란을 일으키게 하라고. 침략으론 그들을 움직일 수 없어. 겁을 줘서 이탈시킬 뿐.” 나는 다시 주저했다.

“아니.” 한참이 지나서야 나는 말했다. 내 옆에서, 라네트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쳤다. “라마트라, 이 로봇들은 자아가 없는 기계야. 이젠 구식이라고!” 이들은- “소모품이지.” 내가 대신 말을 끝맺었다. “너는 아니고. 우리 동족은 아니고.”

라네트의 눈이 깜빡였다.

“좋아.” 그녀는 말했다. “하지만 나는 도시에서 배치를 감독하고 오작동은 없는지 지켜볼 거야. 당신도

내가 그래야 한다는 걸 알 테니, 그렇게 알아둬.”

“그래.” 나는 말했다. “지하 세계에 머물러라. 그곳의 방어가 가장 철저하니까.”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조금이나마 긴장을 풀었다.

“이번 봉기에서, 우린 인간들에게 우리가 생각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거다. 우린 그들의 가장 잔혹한 도시 중 하나에

요새를 건설하고, 우리 동족을 위해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리라. 전 세계의 옴닉들에게, *지금*이 우리와 함께할 때라는 사실을 보여줄 것이다. 그게 목표다.”

나는 너무 많은 동족이 누워 있는 고철 처리장 영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널 섹터의 진정한 모습을 모든 옴닉이 알아야 할 때가 왔다.”

최악의 범죄

옴닉의 반란 이틀 후

“자칭 널 섹터라는 소규모 옴닉 테러리스트들” 내 앞의 화면에서 몬다타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 옛 스승이 말하는 동안, 카메라에 함께 잡힌 인간 기자는 연기하는 듯한 연민으로 얼굴을 가득 채운 채 고개를 끄덕였다. “삼발리 수도승들은 런던에 대한 이번 공격을 규탄합니다. 우린 폭력이 아니라 인간과의 평화를 추구합니다.”

내 눈이 스승의 모습 아래에서 흘러가는 문구로 향했다.

발전소에서의 총격전 끝에 널 섹터 주모자 사망.

분노가 몰려왔다. 옴닉들이 자유를 기다리며 감방 안에 고분고분 앉아 있는 모습을 떠올렸다. 망자가 쌓인 광대한 고철 처리장을 떠올렸다.

그리고 몬다타는, 동족을 해방시키기 위해 싸우다 죽은 라네트의 명예를 깎아내리고 있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누군가 주먹으로 화면을 때렸다.

누군가 내게 그만하라고 애원했다. “라마트라! 제발!”

나는 주먹을 쳐들고 빙글 돌아섰다. 제라는 자기 몸을 방어하려는 시늉도 없이 가만히 서 있었다. 더욱 공허해진 방의 예의 그 구석 자리에 있던 무명이 화면에서 시선을 돌려 날 뚫어져라 올려다봤고, 나는 하마터면 저지를 뻔했던 일의 고통에, 그 수치심에 우뚝 얼어붙었다.

나는 깨진 화면을 바라보았다. 손상된 화면에 둘러싸인 몬다타는 깜빡이는 영상 속에서 우릴 옴닉 동족에 대한 배신자라 지칭하고 있었다.

위선자.

“알고 있나?” 나는 중얼거렸다. “인류 최악의 범죄가 무엇인지.” 제라는 물끄러미 날 바라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젠 지쳤어,” 그녀가 입을 열었지만, 나는 말을 끝낼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빙글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봤다. 다시 분노가 치솟았다.

“만족이다!” 나는 소리쳤다. “그들은 그 무엇보다 평화를 위한 나머지, 그저 편하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무시했어. 그들이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 믿는 건, 그저 그러길 바라기 때문이다. 인류는 결코 우릴 돕지 않을 거다. 그들은 자기들 세계의 작은 공간을 우리에게 팔아넘기려 할 거고, 그게 아니라면 우릴 무시하겠지.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약점을 저자에게 넘겨줬다.”

나는 차마 몬다타를 다시 볼 수가 없어서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그는 자기가 우리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한다. 아누비스처럼, 몬다타는 우리 동족을 사지로 내몰고 있어. 저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고-”

“라마트라.” 마침내 무명이 입을 열었다. “기사를 확인하는 중인데, *아주 많은* 옴닉들이 우릴 비난하고 있어.”

나는 이마에 손을 얹었다. 내 생각이 뜨거운 독액이 된 것만 같았다. 그게 날 잠식하기 전에, 소리 내어 말해야 했다. “옴닉들이 죽음을 선택한다면,” 나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우리가 그런 선택지를 빼앗아야지.”

내 친구들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무슨 뜻이지?” 무명이 심드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라네트가 원하는 군대를 만들 거라는 뜻이다.” 나는 말했다. “그다음에 우린 동족을 구원할 방법을 찾을 거다. 그들이 원하는 원치 않든, 그들에게 그럴 *자격이* 있든 없든. 그들이 자의로 우리와 함께하지 않겠다고 하면, 우린 그들을 움직일 방법을 찾을 것이다.” “라마트라,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야.” 제라는 애써 침착하려 애를 썼지만 그러지는 못했다. “상황이 진정되고 나면 다른 옴닉들도 *합류할* 거야.”

“기회는 지나갔어. 그로 인해 라네트는 목숨을 잃었고.”

제라가 아래로 늘어뜨린 커다란 손을 움켜쥐었다. “넌 우릴 감옥에서 해방시켰는데, 이제 와서 우리 동족을 다시 감옥에 넣겠다는 거야?”

“그래야만 그들이 귀를 기울인다면!” 내가 내뱉자 무명이 구석에서 타오르는 눈빛으로 따리를 풀었다.

“내가 말했잖아.” 무명은 낮은 목소리로 경고하듯 말했다.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고.”

“우릴 봐.” 내가 딱 잘라 말했다. “우린 인간이 만들어 준 몸뚱아리를 입고 인간과 싸우고 있다. 그들의 결함과 무의미한 불화까지 물려받은 채. 이래야 할 필요는 없어.”

“네가 결정할 일이 *아니야!*” 무명이 마주 외쳤다. “그런 걸 함께할 생각은 없어!” “그렇다면 떠나라!” 나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고, 이젠 돌이킬 수 없었다.

무명이 몸을 뺏뺏하게 폈다.

“좋아.” 무명은 잔잔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차피 너무 오랫동안 내 그림자를 떠나 있었던 것 같으니까. 갈까, 제라?” “데려가지 마.” 나는 말했다.

“그러면 멈추라고.” 무명이 말했다.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이해할 수 있을 거야.”

무명이 다가와 내 손을 토닥였다. 인간적인 몸짓이었다. 화가 치밀었다. “너도 혼자서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걸 언젠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 무명이 말했다. 그리고 무명과 제라는 떠났다.

나는 깊어지는 침묵 속에 잠시 머무르며, 동료들의 빈 자리를, 머리 위 금속과 얼음과 돌의 불가해한 무게를 느꼈다. 우리가 꿈꾸던 평화라는 이름의 무덤을.

그리고, 나는 일을 시작했다.